

## 코로나19와 한국 전통춤 공연 : 공연 공급자 중심으로

배나래\*, 최석권\*\*

\*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

\*\*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전수교육조교

e-mail:victory0302@hanmail.net

### COVID-19 and Korean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: Focused on Performance Providers

Na-Rae Bae\*, Suk-Kwon Choi\*\*

\*Dept. of Social Welfare, Konyang Cyber, Daejeon Metropolitan C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. 15 SeungMu Heritage Skills Teaching Assistant<sup>1\*</sup>

#### 요 약

사상초유의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시민들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 만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. 전통문화 예술계도 다르지 않다. 코로나19로 무관중으로 공연을 기획하였고, 큰 공연장에는 공연자와 주최, 주관의 담당자들만 함께하였다. 공연은 온라인 스트리밍 송출로써 관객들에게 소개 된다.

전통무용공연 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은 현장감과 친근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. 관객과 공연자가 소통하며 교감함으로써 공연의 흥미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코로나19 상황은 공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공연문화의 지각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. 온라인 스트리밍방식의 공연이 앞으로의 공연 형태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, 또 다른 공연 방식이 생겨날 것인지에 대해 우리 무용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,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. 현장공연이 사람짐과 동시에 축적되는 예술 에너지를 우리 무용인들은 어떤 형식의 새로운 춤으로 승화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.

#### 1. 서론

사상초유의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시민들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 만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. 전통문화예술계도 다르지 않다. 코로나19로 무관중으로 공연을 기획하였고, 큰 공연장에는 공연자와 주최, 주관의 담당자들만 함께 하였다. 공연은 온라인 스트리밍 송출로써 관객들에게 소개 된다.

전통무용공연 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은 현장감과 친근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. 관객과 공연자가 소통하며 교감함으로써 공연의 흥미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 또한 공연장의 형태에 따라 손에 잡힐듯한 공연으로 관객은 현장감을 느끼고 공연자는 관객의 반응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였으며,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 가는 공연으로 혼연일체의 장이 될 수 있다.

그러나 코로나 19는 우리의 공연문화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. 공연장에서 공연은 시작되지만, 공연자들은 관객 없는 공연을, 관객은 온라인으로 공연을 보게 된다. 우리는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공연, 관객과 호

흡할수 있는 공연에 대한 기획을 많이 생각한다. 즉 먼대면으로서의 공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수 있다.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은 공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공연문화의 지각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.

온라인 스트리밍방식의 공연이 앞으로의 공연 형태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, 또 다른 공연 방식이 생겨날 것인지에 대해 우리 무용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,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. 현장공연이 사람짐과 동시에 축적되는 예술 에너지를 우리 무용인들은 어떤 형식의 새로운 춤으로 승화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.

#### 참고문헌

- [1] 박인배, 최치성, “전통공연의 관객과 눈 맞추기”,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, 제2권, pp13-28, 2013년.
- [2] 조석연, “전통공연유산의 지속과 변화”, 한국공연문화학회, 제32권, pp399-426, 2016년.
- [3] 김순호 “한국의집 전통예술공연의 가치와 미래 전략 연구”, 국립국악원, 제33권, pp9-33, 2016.